



금수강산

5

2026년

루게 제 441호 월간

표지: 조국의 화보를 보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김영녀를 비롯한
 동포들이 조국의 소식이 실린 화보를 보며 이야기
 를 나누고있다.
 날마다 변모되는 조국의 현실은 동포들의 기쁨
 으로 되고있다.

사진 김성철

2 ||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러

8 || 적극화되고있는 관광업

10 || 고산지대의 체육문화휴식기지

12 || 온포근로자휴양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4 || 옥돌공예 《복록만대》

일화

15 || 위민헌신의 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6 ||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18 || 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시어

20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

22 || 다채로운 활동으로

인상기

25 || 마음은 조국과 함께

25 || 조국은 듣던것보다 더 아름답다

26 || 《원앙새부부》



2



10



28



36



38



50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28 ||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

고향소식
30 || 특산자랑이 늘어나는 고장

34 || 다종화, 다양화에 힘을 넣어

36 || 여러가지 건구제품들을

37 || 다양한 돌가공기술로

38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과일가공품들을

40 || 봉사실기교육에 힘을 넣어

42 || 국제인명사전에 오른 물리학자들

44 ||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를 키워낸 교원

46 || 여운을 준 우표전람회

48 || 개성고려인삼

50 || 지하명승 룡문대굴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4 || 구성남문

력사인물
55 ||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전설
56 || 등산놀이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인민들에게 더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국가적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명승지와 명소들에 관광지, 휴양지들이 일떠서고있다.

중요회의들과 여러 계기때마다 우리 나라

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관광지건설을 발기하시고 훌륭히 완성하도록 령도하시였다.

2024년 7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동서 두 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금강산과 칠보산, 마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동해명승지들이 많은 조건에서 앞으로 관광업분야에서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집중할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해안관광자원으로서 체육형관광자원과 휴식위주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관광자원을 특색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대책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같은 해 7월 11일과 12일 그이께서는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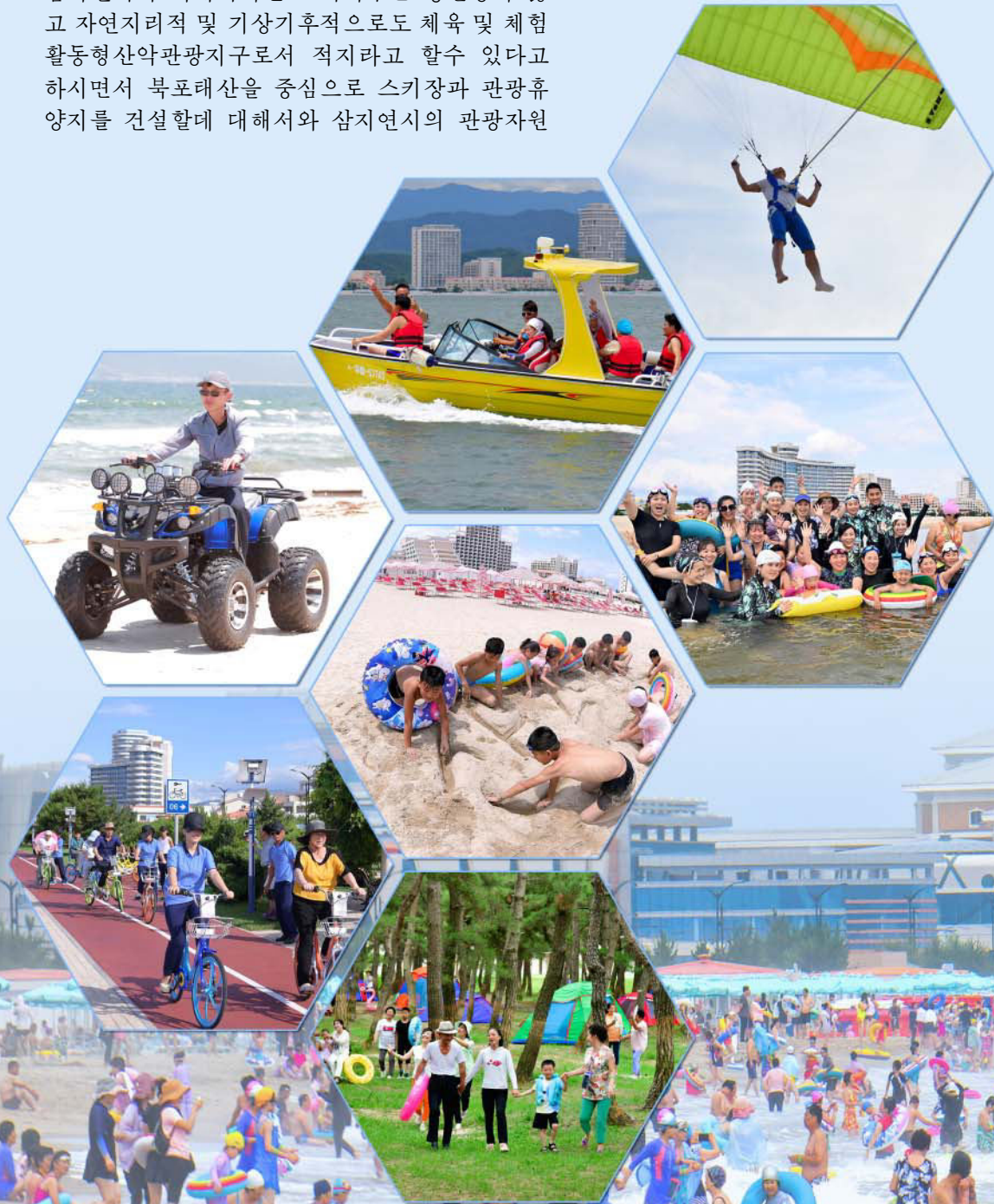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관광업을 발전시킬데 대해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지면적이 전 령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산악관광업을 전망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을 우리 나라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특색있는 복합형산악관광지구, 사계절산악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국제관광도 활성화해나갈 당의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천연수림과 산악을 이루고있는 백두산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세계적인 명산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며 관광업이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삼지연시의 미개척지인 포태지구는 강설량이 많고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으로도 체육 및 체험 활동형 산악관광지구로서 적지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휴양지를 건설할데 대해서와 삼지연시의 관광자원을

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도 밝혀주시었다.

오늘 조국땅에 일떠선 관광지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그이의 열화와 같은 인민관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그 숭고한 인민관이 떠올린 실체중의 하나이다.

어느해인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경치 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려 인민들이 마음껏 향유하게 하려는것은 당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사업이며 자신께서 제일 하고싶었던 사업중의 하나라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무엇을 또 해줄것인가를 두고 마음 쓰시며 끝없이 이어가시는 사색속에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를 일떠세울 결심을 굳히시였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이시다.

언제인가는 공사진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명사십리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 소리가 울려퍼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파감히 돌진해나가자고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고 또 어느때인가는 이른새벽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해안관광지구를 더 잘 꾸리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만이 아니다. 어느해인가 삼지연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그이께서는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휴양지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25년 3월에는 온포근로자휴양소신설공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온천치료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명향유에 이바지될수 있도록 봉사조건과 치료환경수준을 더욱 개선할데 대한 문제, 경치 좋은 산간지역이라는 지대적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생활령역과 공간을 확대조성할데 대한 문제 등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우월한 사회주의시책의 혜택속에 문명의 실체를 마음껏 체험하며 건강증진을 도모할수 있게 나라의 명산, 명소들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융합된 인민의 문화휴양지와 료양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종합적인 봉사시설들도 더 많이 갖추어주어 그것이 곧 문화적진보의 거점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집진으로 이어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문명의 설계도를 펼쳐가시는 그이의 령도에 의해 조국땅 곳곳에 많은 관광지, 휴양지들과 호텔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일떠서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개성시의 고려인삼문화관광지 등은 우리 인민이 즐겨 찾는 이름난 관광지들로 꾸려졌다.

그런가 하면 삼지연관광지구에 소백수, 이깔, 밀영, 붓나무, 청봉호텔들이 일떠섰고 조선동해의 관광명소들에 엄분진해안공원지구와 온포근로자휴양소가 준공, 개업하였으며 룡강관광속소가



붓나무호텔



밀영호텔

건설되였다.

이 땅우에 솟구치는 문명의 실체들을 목격하고 폐부로 느끼면서 우리 인민은 아름다운 새 생활, 더 좋을 래일을 락관하고있다.

글 변진혁



삼지연산악관광지구

적극화되고있는

관광업



기자 김성경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이정혁

최근 나라의 관광업이 보다 적극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기자는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이정혁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의 관광지개발과 그 리용에 대하여 알고싶다.

부총국장: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계획적, 통일적지도에 의해 이름난 명소들에 해당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융합된 관광지를 개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전망성있게 벌어지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선택하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산지면적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있고 동서양면이 바다와 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산악관광자원과 해안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백두산지구는 여러 차례의 화산분출과 관련된 특이한 지질과 지형, 고산지대의 자연환경과 결합된 식물과 동물, 천지에 시원을 둔 수문학적동태를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

지고있어 특색있는 복합형산악관광지구, 사계절산악관광지구로 개발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현재 이곳에 꾸러진 백두산지구 체육촌에서는 등산, 스키타기, 야영생활, 산나물채취 등매 계절마다 자기의 매력과 특색이 뚜렷한 관광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난해말에는 삼자연지구에 현대적인 호텔들이 새로 일떠서 관광지구의 체모를 더한층 갖추었다.

미개척지인 포태지구도 강설량이 많고 자연지리적 및 기상기후적으로도 체육 및 체험활동형산악관광지구로서 적지이다. 머지않아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휴양지가 건설되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령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전망적으로 백두산으로부터 북포태산, 남포태산을 포괄한 넓은 지역에 관광지구가 형성되게 된다.

이미전부터 주요산악관광지구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과 묘

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의 명산들에서의 봉사환경이 개선되고있으며 관광봉사활동도 부단히 세분화되고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인기가 높은 관광지의 하나이다.

평안남도 양덕군에 자리잡은 이 휴양지는 산골안에서 온천욕을 할수 있게 실내 및 야외온천장들이 꾸러져있고 산비탈면에는 스키주로가 닦아져있으며 산기슭에는 승마장이 자리잡고있어 우리 나라의 복합형산악관광지구를 대표한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해안관광지구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부총국장: 지난해 사람들의 화제에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이다.

예로부터 뛰어난 경관으로 일러오고있는 갈마반도의 명사십리는 백사장이 아주 깨끗하고 원림록화가 잘되어 경치가 좋을뿐 아니라 수산자원도 많아 해안관광지구로서는 아주 리상적이다.

바로 이러한 명소에 근 2만명 수용능력의 관광지구가 건

설되어 사람들이 조선동해명승의 진미를 마음껏 맛볼수 있게 되었다.

올해 해변가지역의 멋과 특색이 살아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인 염분진해안공원지구가 준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우리 나라 조선동해안에는 이밖에도 마전, 금야, 리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명승지들이 많다. 조선동해안의 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들이 결속되면 체육형관광자원과 휴식위주 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관광자원이 결합된 관광봉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된다.

기자: 국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생활령역에서의 관광지개발 사업은 어떤가.

부총국장: 전통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문화관광지에 대한 인기도 높다.

지난해말에 개업하여 운영되고있는 개성시의 고려인삼문화

관광지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인삼재배지로 소문난 이곳에 고전미가 살아나게 꾸러진 관광지는 관광객들에게 특유의 정서를 안겨준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박연폭포에도 가보고 인삼포전에도 가보게 되는데 인삼을 재배하는 것도 보고 수확계절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삼을 직접 캐보는 경험도 체험하며 인삼차를 비롯한 인삼음료와 음식을 제손으로 만들어 맛볼수 있다.

온천군과 강서구역의 문화휴양지들을 개건하거나 증설하고있는 남포시를 비롯하여 각 도들에서 지역적특색이 살아나는 전통문화관광지들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자: 여러 봉사단위들의 국내관광활동이 적극화되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싶다.

부총국장: 관광명소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국내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이에 맞게 려명골프여행사, 조선청년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 평양관광사, 모란봉관광사, 조선국제명산여행사를 비롯한 여러 봉사단위들에서 관광들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조직하고 활기있게 내밀고있다.

특히 려명골프여행사의 관광봉사가 주목을 끌고있다. 평양 시내관광과 삼자연산악관광지구관광,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련결하는 관광, 골프애호가관광, 왕건왕릉과 고려박물관 등 역사유적참관을 위주로 하는 개성지구관광, 등산과 부감을 목적으로 하는 묘향산지구관광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조직하고있으며 합리적인 관광통로를 마련하고 봉사조건을 개선하는 등 관광봉사의 질을 보다 높여나가고있다.

앞으로 우리는 현실에 부합되고 세계관광발전추세에 따르는 관광산업발전계획들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집행해나갈것이다.

* * *



고산지대의

체육문화휴식기지



량강도 삼지연시에는 베개봉이 있다. 이곳에는 베개봉호텔과 베개봉스키장이 있다.

봉우리의 정점에 특색있게 건설된 베개봉호텔은 2025년 5월에 준공되었다.

호텔에는 1등실, 2등실, 3등실을 비롯한 백수

십개의 방들이 있으며 300여명의 손님들을 수용할수 있다.

호텔의 식당들에서는 천연수림의 향취가 짙은 량강도의 특산료를 비롯한 조선음식들과 세계 요리들을 봉사받을수 있다.



호텔에는 물놀이, 당구, 보링, 리발, 미용, 미안, 안마를 비롯하여 손님들의 휴식과 편의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그런가 하면 고산스키주로, 스키관광주로, 거리스키주로, 스키조약장이 있는 베개봉스키장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베개봉정점에서 백두산의 웅장한 산발들을 한눈에 담아보는 뿌듯함과 스키를 타고 지척내려오는 쾌감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되고있다.

글 번진혁, 사진 황정혁



온포근로자휴양소



지난 2월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온포근로자 휴양소가 일신되어 개업하였다.

근 80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휴양소는 이번 에 산간지역고유의 멋과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현대건축술의 제반 요구가 구현된 종합적인 문화 휴식 및 료양치료봉사기지로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였다.

문화휴식과 치료봉사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진 휴양각과 온천장들은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꾸려져있다.

이곳 소장은 온포온천은 력사가 매우 오래다 고, 예로부터 이 지대는 수림이 우거지고 기후가 좋으며 온천분수까지 뿜어져나와 아름다운 명소 로 일러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조치로 이곳이 온포온천특색의 문화를 선양하는 유명한 곳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온천치료는 휴양소의 특색이며 기본봉사업종 이다.

강알카리성고온천인 온포온천에는 혈액순환을 강화하고 물질대사를 촉진하는데 유용한 성분들

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있어 약리작용과 치료효 과가 아주 높다.

이곳 봉사자들은 이 온천욕으로는 만성위염 (과산성)과 만성소대장염, 만성기관지염, 신경통, 부인병, 자률신경기능장애 등의 치료에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26일에 첫기 휴양의 나날을 보낸 룡 성기계련합기업소 직장장 정명수, 김책체철련합 기업소 로동자 김금철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감상

록에 이곳에서 양덕온천과는 또 다른 특색의 온 천문화를 체감하였다고, 훌륭한 휴양지를 마련 해준 국가의 혜택에 더 많은 생산성파로 보답하 겠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지금 이곳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원영일



옥돌공예 《복록만대》

옥돌공예 《복록만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6년 1월 중국의 한 해외 동포가 삼가 드린 선물이다.

《복록만대》라는 말은 우리 조국이 대대손손 복을 누리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총높이가 59cm이며 무게는 28kg인 선물에는 우리 나라를 의미하는 진달래꽃과 대대손손 락을 누릴 우리 인민을 형상한 호리병박, 승리를 뜻하는 포도송이 등이 반영되어있다.

해외동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려는 한마음을 담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옥을 구입하여 이름난 옥돌공예사를 통해 6개월간 정성껏 가공하여 옥돌공예 《복록만대》를 완성하였다.

선물은 사회주의조국을 세계가 우러르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켜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상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백옥에 담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위민첸진의 나날에

후대들이 보게 될 덕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다기능체육문화지구를 돌아보시였다.

이어 전망대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온천관광지구의 봉사전물들을 보시면서 정말 특색이 있다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봉사단위 종업원들의 살림집들도 고급한 별장같다고, 온천관광지구주변의 농촌마을들은 농촌마을건설의 본보기가 되였다고, 이것이 우리 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개발한것처럼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기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나라의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대에 해놓으면 후대들이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해안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해야 한다시러

2024년 7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거대한 관광지구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부감하시며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바다가특유의 이채로운 저 경관을 눈에 담는것만으로도 금시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것만 같다고, 목표했던바 그대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서의 체모를 유감없이 완벽하게 드러내고있다고 거듭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경험에 토대하여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동서 두 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동해명

승지들이 많은 조건에서 앞으로 관광업분야에서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집중할데 대한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해안관광자원으로서 체육형관광자원과 휴식위주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관광자원을 특색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대책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기본은 봉사의 질

2025년 12월 2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관광지구에 일떠선 이깔호텔과 밀영호텔을 돌아보시였다.

호텔들의 침실들과 내부에 아담하게 꾸러진 문화휴식공간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였다고, 삼지연시에 이렇듯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들이 일떠선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관광문화를 확립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호텔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봉사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라고, 호텔들에서는 봉사능력과 봉사원들의 전문가적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봉사전문가양성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것이 필수적인 과업으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봉사업종들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서 급진적인 발전과 변천의 새 폐지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것과 함께 관광명소들에 현대문명의 실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는것 자체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리상과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 * *

쏘베르나, 인민혁명정부냐?

유격구에서 좌경바람이 제일 우심하게 나타난 것은 정권건설분야였다. 정권건설에서의 좌경적 편향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모험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의 소부르조아적조급성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쏘베르건설로선과 쏘베르의 명의로 실시된 일부 시책들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었다.

정권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벌써 《드.그》시절부터 우리의 논의에 올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정권문제는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후에 상정해도 될 장래의것이고 또 국권수복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만 그 건설에 착수할수 있는 리념상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권형태에 대한 견해는 곧 그것이 어떤 성격의 혁명을 추구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었다.

정권문제가 우리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논의거리로 되었던것은 길림시절이었다. 길림의 정치무대에서 독립후의 국가형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때란 거의 없었다. 3부계통의 독립군지도자들이 왕조정치나 부르조아공화제를 주장하며 기업을 토할 때 김찬, 안광천, 신일용과 같은 구공산당계렬의 정객들은 즉시적인 사회주의의 실현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르짖었다.

박소심도 고전의 명제에 집착되어 노동자, 농민의 독재를 운운하였다. 그는 로농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지지하면서도 독재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머리를 내지었다.

길림청년들은 그 준비정도와 리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왕조정치를 지지하기도 하고 부르조아

공화제에 미련을 가지는가 하면 쏘련식사회주의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혁, 차광수, 계영춘, 신영근과 같은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독립군령감들이 왕조복귀를 운운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열을 내었다. 즉시적인 사회주의실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실정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토론이 주되는 내용으로 되고있던 청년학생들의 연단에서 정권문제를 크게 상정시키고 치열한 쟁론을 벌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후 우리는 카툰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한데 기초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광복된 조국에 수립해야 할 정권은 마땅히 왕조정치나 부르조아의회제정치를 배제한 인민을 위한 정치제도, 다시말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31년 12월의 겨울명월구회의에서 정권문제가 논의될 때 우리가 표명한 주장도 본질상 이와 동일한것이였다.

간도지방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되면서부터 우리 혁명에서는 정권건설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정에 올랐다.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를 유지하고 그것을 운영해나가자면 그 령역내의 인민들에 대한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정권을 건설해야 하였다.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는 유격구에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인민들을 먹여

살릴수도 없었고 그들을 투쟁으로 조직동원할수도 없었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은 1932년 가을부터 유격구역들에서 정권수립을 위한 력사적인 로정에 들어섰다. 그해 10월혁명기념일을 계기로 왕청현 가야히에서는 군중대회를 열고 쏘베르정부수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연길현 왕우구와 삼도만에서도 쏘베르가 수립되었다. 유격구역에 혁명정권이 선것은 의심할바없이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는 의의있는 사변이였다.

처음에는 나도 유격근거지들에 쏘베르정권이 수립된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명칭이야 어찌 되었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라면 그만이라고 보았다.

당시는 《쏘베르열풍》이 온 동만땅을 휩쓸던 때였다. 쏘베르를 수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각국의 혁명투사들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인된 사조로 류행되고 전파되었다. 그 열풍은 구라파와 아시아를 가리지 않았다. 중국 서금의 중화쏘베르와 웰남의 느구엔-딘쏘베르의 수립은 그 좋은례증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성격을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 본 사람들도 로농쏘베르정권을 론하였다.

국제당본부에 가있던 조선의 최성우 등이 국제당집행위원회에서 동방부의 일을 맡아보던 일꾼들(꾸우씨넨, 마지야르, 오까노)과 함께 작성하였던 《조선공산당행동강령》은 조선의 완전

독립과 함께 《노동자, 농민의 쏘베르국가수립》을 당면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쏘베르로선을 지지하고 그를 혁명실천에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의문의 여지조차 가질수 없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었으며 혁명적, 공산주의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일종의 기준으로 되고있었다.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고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들과 공산주의조직들에서도 쏘베르정권건설을 지상의 과제로 내세웠다. 실로 쏘베르는 전세계무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리상으로 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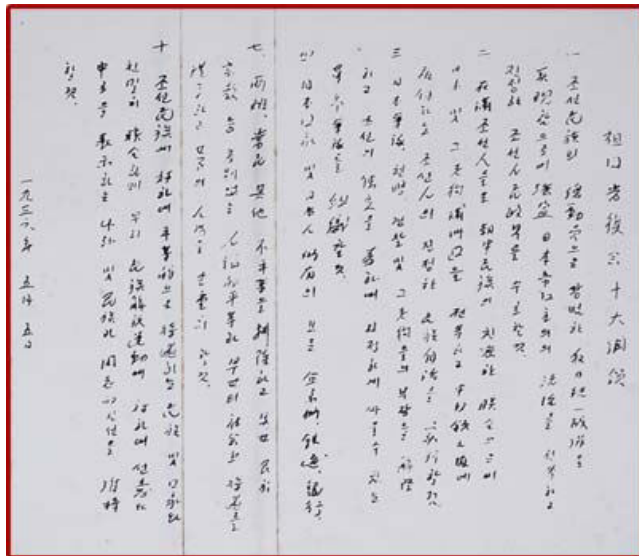
쏘베르가 이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은것은 그것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절대화할 복지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권형태로 인정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세상에 대한 동경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꿈꾸어온 념원이었고 리상이였다.

로씨야에 수립된 청소한 쏘베르정권은 전복당한 착취계급의 반란을 분쇄하고 제국주의련합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실로 이 세상 그 어떤 정권도 이루어본적이 없는 미증유의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쏘베르사회주의의 이러한 개선행진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쏘베르에 대한 숭상을 환상의 경지에까지 떠밀어가게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료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친필원고

조선혁명사의 갈피에는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한페이지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90년전의 일이지만 그 의의와 역사적의미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1930년대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여러 정당들과 로동운동단체들이 있어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 인민전선결성이 가능하였지만 우리 나라에

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것과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체조직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일전선이란 반드시 정당단체들의 련합으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정당단체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된다고 하시면서 균중이 있고 정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사람이건 백사람이건 묶어세워야 한다는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라고 하시였다.

자주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립장이였다.

그이께서는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는 멀고도 간고한 행군길과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정력으로 새로 내올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몸소 작성하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36년 5월 5일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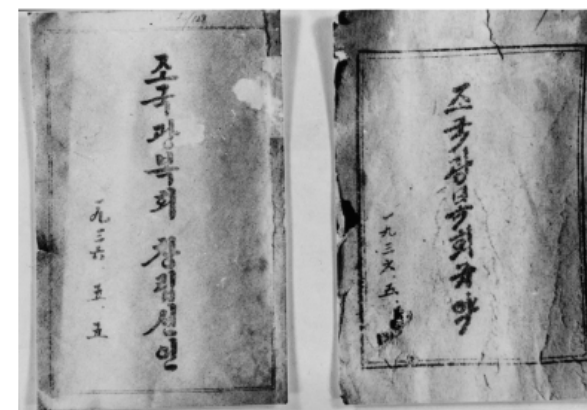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동강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자》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고에서 조국광복회 창립의 의의와 조국광복회의 성격, 조국광복회강령의 기본내용을 밝히시고 조국해방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이 발표되였다.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온 민족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한다면 일제는 괴멸될 것이고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는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확신에 넘치신 호소는 회의참가자들모두를 무한히 격동시켰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조국광복회창립선언》과 《조국광복회규약》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된것은 역사적사변이었으며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양양으로 떠민 계기였다.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 속에서도 조국광복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계급적처지와 정치적견해가 다른 각이한 계급과 계층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 세워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단결의 전통이 있어 우리 인민은 해방후 것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새 조국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룩하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왔다.

글 임향심



조국광복회창립을 알리는 구호문헌들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

부문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이다.

전반분야, 전반지역, 전반부문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일치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은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세우는것이 전면적발전기에 견지하여야 할 시대적요구로 되는것은 우리나라가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집단주의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사이의 동지적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서로가 뜨겁게 위해주고 아껴주는 고상한 정신과 미풍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집단주의야말로 우리 인민을 정의롭고 아름다운 인간들로 키우고 우리식 사회주의가 생기와 활력에 넘쳐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다.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는 둘째로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해나가는것이다.

전면적발전시대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인것만큼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록 지난 시기에는 필수적이고 합당했다고 해도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대담하게 버리고 새로운 안목에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여야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정책에 맞지 않고 개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시대의 발전추세에 뒤떨어진 도식과 틀, 여기에 집착하는 완고한 보수주의와 비과학적인 경험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전개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변혁시대에 상응하게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계속 고조시키는것이다.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는 셋째로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실리있게 진행하고 전문가적 자질을 중시하는것이다.

전면적발전은 대중의 창조력과 현존토대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훌륭한 결과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최적화, 최량화된 사업방식을 요구하며 이것은 모든 과학적타산과 예견, 실리보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전면적발전시대에는 과학적타산이 없는 사업태도가 추호도 허용될수 없다.

나라의 전반분야, 전반부문, 전반지역이 동시에, 급진적으로 변천되는 현실은 그 어디에서나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재를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중시하고 지식과 기술이 높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하게 하며 전문가적인 자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것이다.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는 넷째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서 각급 부문과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 빨리 진척되자면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각급 지도단위들에서 전면적발전시대에 적합한 올바른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구현하고

탐구, 적용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의 변화 속도, 대중의 각성속도에 일군들의 정치적자각과 지휘능력을 올려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다.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는 다섯째로 사상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전면적발전시대는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으로 만사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배치되는 온갖 부정적현상들과의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제일주의는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비결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믿고 의지하는것은 그 어떤 역대의 재부나 자원이 아니라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다.

사상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의 힘, 군중의 정신력발동을 항상 선행시키는것이며 대중의 창조열의와 분위기에 역작용을 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와 같은 반인민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벌리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5년간에 쟁취한 성과들을 조국과 혁명, 인민의 재보로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실제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와야 할 임무가 나서고있다. 과업은 방대하고 조건은 의연 어렵지만 당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승리는 확정적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명향

다채로운 활동으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에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는 모범지부들중의 하나이다. 료녕지구협회 회장 주계숙, 심양시지부장 심연택, 부지부장 류창환을 비롯한 협회와 심양시지부의 동포일군들은 조국의 뜻깊은 명절들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고있다. 그리고 조국의 신문, 잡지들을 통한 독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동포들이 항상 사회주의조국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도록 하고있다. 특히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의 체험담은 지부성원들에게 조국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동경심을 더해주고있다.

조국애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조선기록영화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을 시청하고있다.



심양시지부 성원들



심양시지부장
심연택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한다.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를 찾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보(오른쪽에서부터 다섯번째)



조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지부에서는 동포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미풍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동포들의 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마음을 쓰며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흘러넘치도록 애써 노력하는 지부일꾼들의 모습은 지부성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글, 사진 김성철



지부활동은 언제나 활기를 띠고있다.

우리 춤과 노래로 흥성이고있다.



지부성원의 생일을 축하해주고있다.



인상기

마음은 조국과 함께

비록 해외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마음은 항상 조국에 두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의 출판물들을 매일 보고 있다.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거점들이 곳곳에 일떠서고 국가가 품을 들여 건설한 살림집들이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지는 소식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는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조국의 현실을 대할수록 우리의 자긍심은 하늘에 닿고 배심은 더 든든해진다.

나는 중남지구협회 회장으로서 동포들을 조직



에 더 굳게 묶어세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함께 하도록 노력해나갈것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백경현

조국은 듣던것보다 더 아름답다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거점들은 너무도 많아 꼽자고 해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이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사람들의 눈뿌리를 뽑을 정도이다. 특히 말로만 들어오던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가보았는데 절로 감탄이 나왔다.

만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모두가 구면지기처럼 생각되었다.

도저히 내가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은것같지 않았다.

그래서 백번 듣느니 한번 평양행을 하라고 친지들이 권고한것같다.

이제 돌아가면 내가 본 조국의 모든것에 대하여 동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주겠다.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정말 조국은 듣던것보다 더 아름답다.

가는 곳마다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된 새 거리가 준비하게 일떠섰는가 하면 인민을 위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단동시지부 회원 로금실



《원앙새부부》

취재길에서 만났던 동포들의 모습이 때없이 눈에 밝혀온다. 그들중에는 지난해 평양과 중국에서 만났던 동포부부도 있다.

그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동주봉과 그의 안해 정은심이다.

이들부부는 서로 돕고 이끌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있다.

특히 정은심동포는 사업부담이 많은 남편을 성심성의로 방조해주고있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창건 8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총성의 편지이어달리기대표단의 성원으로 조국에 왔을 때 이들부부는 마음을 합치며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정은심동포는 대표단단장인 남편의 사업을 적극 뒤받침해 준것은 물론 대표단에 소속되어 있는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동포들을 위해 언제나 원심을 썼다. 안해는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대표단성원들에게 먼저 대접하고 몸에 늘 약품들을 가지고다니면서 그들을 돌봐주었으며 남편은 그러한 안해를 적



안해 정은심



남편 동주봉

극 지지해주고 협력해주었다. 다심한 이들부부로 하여 대표단에는 언제나 화목하고 따뜻한 정이 넘쳐흘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년전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들부부는 자기들이 쓸 약품들을 넉로한 동포들에게 먼저 보

내주었으며 입맛을 잃은 동포들을 위해 제손으로 성의껏 준비한 김치를 비롯한 특색있는 음식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수시로 동포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며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자기들보다 남을 먼저 생각

하고 위해주며 가정뿐 아니라 집단에도 화목을 불러오는 이들부부를 동포들은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며 《원앙새부부》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성철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부사장 손은일

《력사학을 단순히 지나간 사실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학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더우기는 후대들에게 조선사람의 넋을 심어 주는 유익한 일임을 너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민족고전연구라는 학문의 첫걸음을 뗀 손은일에게 있어서 이날 아버지의 당부는 한생의 좌우명으로 깊이 새겨졌다.

현재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부사장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자기의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볼 때면 자주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오래동안 동포자녀들을 위한 도교의 어느한 초급중학교 교무주임을 하였다. 이 나날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함께 역사를 가르치는것이 새세대들이 자기 조국을 더 잘 알게 되

고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자라우는데서 아주 중요한 사업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는 독학으로 력사학을 배우면서 강의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력사학에 심취될수록 그는 전문교육을 받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는 김형직사범대학 력사학부에 입학하여 자기의 소망을 이루었으며 졸업후에는 대학교원으로, 그후에는 조선민속박물관 학술원, 실장으로 사업하면서 민속유물보존사업에 심신을 다 바쳐갔다.

출창 출장지에 나가살다싶이 하면서 보존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비록 평범하고 소박해보여도 은일에게 참된 애국자의 모습으로 비쳐졌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은일은 사회과학대학 민족고전학과를 졸업하고 사회과학원 민족고전

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면서 높은 실력으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조선봉건왕조실록의 원사료로 되는 《비변사등록》번역사업과 《팔만대장경》번역사업에도 참가하였으며 전국의 절유적들을 편담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비석들에 새겨진 한자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것을 비롯하여 민족유산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의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그후에는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부사장의 직책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갔다.

그는 보존사가 민족유산보호부분의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연구사들의 실력을 제고하고 그들이 자기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러한 나날속에 전국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교류를 활발히 진행할수 있는 정보체계가 구축되고 남포시 룡

강군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발굴한것을 비롯하여 수십점에 달하는 유적유물을 발굴, 고증하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었다. 그

는 우수한 물질유산, 자연유산, 비물질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의 명산인 금강산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된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민족유산보물고를 더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가 집필한 《성불사》, 《박천 심원사》 등 여러 도서들은 전문가들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는 오늘도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가족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청동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소금생산유적 새로 발굴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이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자구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청동기시대와 신석기시대(5 000~5 500년전)의 소금생산유적인 소금물저장시설과 소금구이시설을 찾아냈다.

소금물저장시설은 소금물을 저장하는데 유리하게 반구형을 이루고있으며 2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되어있다.

웃문화층에서는 소금물을 저장하던 굽은 감탕층과 청동기시대의 팽이그릇조각들이, 아래문화층에서는 소금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깔아놓았던 나무재가 섞인 두터운 진흙층과 신석기시대의 새김무늬그릇조각들이 나타났다.

소금구이시설도 2개의 문화층으로 되어있는데 웃문화층에서는 소금물을 농축하던 연도가 있는 화독시설과 청동기시대의 팽이그릇조각들이, 아래문화층에서는 연도가 없는 화독시설과 신석기시대의 새김무늬그릇조각들이 발굴되었다.

연구집단은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여러가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소금물저장시설의 토양과 그 주변토양의 성분 및 염도를 대비분석하는 과정에 소금물저장시설의 토양염도가 주변토양의 염도에 비하여 훨씬 높으며 따라서 이 유적이 소금을 생산하던 유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자구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의 갓춤새와 질그릇, 토양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심의하고 웃문화층은 5 000년전의 청동기시대에, 아래문화층은 5 500년전의 신석기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바다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던 유적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또한 이 력사유적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일대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써 우리 인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국보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 * *

특산자랑이 늘어나는 고장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의해 새로 일떠선 지방 공업공장들의 제품들이 그 지역의 특산물로 되고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전 캐나다에서 살고있는 최길동동포의 고향인 황해북도 은파군에 대한 취재길에서 느낄수 있었다. 평양에서부터 여러 시간동안 차를 달려 읍거

리에 들어서니 시원하게 뻗어나간 도로옆에 들 지게 들어앉은 지방공업공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우리를 안내한 군의 일군은 《두해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은파군에서는 농산물이 물자교류에서 기본으로 되어오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지나간 옛일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 왔다는 우리의 취지를 듣고난 김영남지배인은 웃음을 지으며 공장의 여러곳으로 안내하였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도라지고추장, 대추사랑, 대추단설기, 말린도라지, 락화생영양즙 등 17종에 110여가지의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 중앙제품 못지 않았다.

특히 군에서 나는 대추와 도라지를 리용하여 만든 건강식품들은 군주민들은 물론 출장왔던 다른 고장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 가져가는 제품으로 되고있다는 종업원들의 자부심넘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로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은파군일용품공장과 은파군옷공장에 들러보았다.

은파군일용품공장의 비누작업반에서는 빨래

그러면서 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면 잘 알게 될것이라며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은파군식료공장이었다.

공장에 들어서니 마침 김영남지배인이 종업원들과 함께 갖가지 식료품을 그득히 실은 자동차를 군상업봉사망들로 떠나보내고있었다.

은파군에 태를 묻은 동포들에게 변모된 고향의



비누외에도 샴푸, 린스 등을 생산하고있었다. 그리고 수지작업반의 종업원들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제작한 중공성형기와 프레스에서 쉬임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비닐박막, 수지보도블록, 수지기와도 다른 지방의 일용품공장들에서는 볼수 없는 제품들이었다. 수지작업반 반장 김정학의 말에 의하면 이 수지제품들은 군의 농업생산과 농촌살림집건설에서 널리 쓰이고있는데 그 질이 높아 이제는 도적으로도 소문이 났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었다.

자기들이 생산한 옷들을 군주민들뿐 아니라 린접군사람들도 즐겨 입는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은파군옷공장의 한 종업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은파군사람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랑을 느낄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읍거리의 한 상점에도 들리었다.

상점안은 맵시있고 쓰기 편리한 각종 수지제품들을 살펴보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사람들, 갖가지 식료품과 기초식품들을 한가득 안고 이렇게 좋은 우리의것이 있는데야 왜 남의것을 바라보겠는가고 하며 웃음을 짓는 녀성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이전에는 나들이 온 손님에게 자기 고장의 특산물이라고 내놓을것이 많지 못했던 은파군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새 지방공업공장들

에서 생산되어어나오는 제품들이 날로 늘어나니 주민들 누구나 좋아하고있었다.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자랑은 군문화회관에서 울려나오는 은파군주민들의 노래와 춤들에도 담겨져있었다.

문화회관에서 우리와 만난 최길동동포의 조카 리연주녀성은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지 얼마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특산물들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정책이야말로 과학이고 진리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실로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해 은파군의 발전만이 아닌 이곳 주민들의 인식령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

은파군을 떠나는 우리의 뇌리에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마 차일봉을 감돌아흐르는 내물이 마치도 아름다운 은빛물결이 출렁이는것과 같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은파천에서 소꿉시절 미역을 감으며 한여름철에 달아오른 몸을 식히곤 하였을 최길동동포가 특산자랑이 늘어나는 오늘의 은파군의 모습을 본다면 그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는지.

글 김지성, 사진 김강무

정치용어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지방발전 20×10 정책》은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것은 말로만 해오던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지방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령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이다.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안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당의 이 정책은 2024년 1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되었다.

* * *

다종화, 다양화에 힘을 넣어

룡악산비누공장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평양의 룡악산기슭에는 룡악산비누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지배인 김명성의 말에 의하면 2016년 조업당시 6종에 31가지에 불과했던 《룡악산》제품이 오늘은 80여종에 270여가지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료를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킨데 그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룡악산비누공장》전자상점을 통하여 구매자들의 평가를 장악하기도 하고 생산자들이 직접 수요자들에게서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한다.

종합된 인민들의 평가와 의견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옷물비누의 세척효과를 더 높이

고 줄기세포를 리용한 기능성 샴푸와 린스, 비듬제거와 탈모방지 등 약리작용을 하는 치료용샴푸들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또한 공장에서는 국내의 자원으로 비누생산용원료와 향료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국내에 흔한 수유나무열매로 물비누를 생산할수 있는 원료



제품의 질제고에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생산공정을 확립한 공장에서는 수유나무열매기름으로 천연계면활성제를 개발하였다.

여기에 여러가지 기능성재료를 합리적으로 첨가하여 거품이 잘 일고 물소비량이 적으며 피부보호효과도 뚜렷한 세

수물비누를 만들어냈다.

공장에서는 모든 제품들에 사용후 은은한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천연향료를 첨가하였다.

머리칼과 피부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인삼샴푸, 생물분해옷물비누, 생강향 그릇세척제 등 공장에서 생산

된 다종다양한 《룡악산》제품들은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있다.

글 채향옥
사진 진선일

여러가지 건구제품들을



을밀봉무역회사 건재생산소에서 생산되고있는 건구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되고있는 각종 단열창문들과 합금자동문들은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효과성도 높다.

유리와 유리사이에 넣을수 있게 새롭게 제작된 여러가지 형태와 색깔의 창가림단열창문들은 사용과정에 먼지가 끼는 현상, 탈색 등 종전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단열효과를 높이면서도 그 사용가치와 품위를 다같이 살리고있다.

합금자동문도 특색이 있다. 자동문조작기를 리용하여 문을 자동조종하게 되어있는 제품은 그 기능이 지능화되어있고 보존효과가 높아 사용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제품들은 송신, 송화지구, 화

성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에 새로 일떠선 상업봉사망들과 기관, 기업소, 살림집들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지난해에 있는 제23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이곳 제품들은 아주 특색있는 건구제품들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다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생산소가 근 20년간의 노력과 창조과정을 거쳐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끊임없이 강화한데 있다.



종업원들은 10여명밖에 안되지만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고있다.

제품개발과 설계,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심하여 연구하고 실천해가는것이 생산소의 매우 진취적인 경영방식이라고 볼수 있다.

품질을 최고로 담보하여 사용자들이 제일먼저 찾는 제품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이들이 경영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 회원인 소장 정금석은 《우리는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로 개발방향을 잡고 제품들을 경량화, 다색화, 다종화하는데로 지향해나가고있습니다.》고 하였다.

앞으로 생산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늘어나는 수요를 보장하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체로 발전하려는것이 이곳 생산자들의 목표이다.

글 강소현
사진 리영철

다양한 돌가공기술로

선박공업성 조선선박기술회사 대해건축기술교류소는 다양한 돌가공기술로 건축장식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단위이다.

교류소에서는 선진적인 안목과 기술로 살림집과 공공건물, 봉사망 등 건축물의 내외부장식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있다.

교류소는 능력있는 기술개발진영을 가지고 건축설계, 시공, 제작, 돌가공 등에서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으며 단위의 기술발전을 떠밀어나가고있다.

가공정밀도가 높은 현대적인 돌가공설비들을 갖추고있는 이곳에서는 화강석, 대리석 등의 여러가지 천연석재로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고급건축재들을 가공하고있다.

란간란주와 벽체돌, 기둥장식돌, 계단판, 휴단판, 돌협판 등 마감건축재들과 식탁, 가시대, 세면대야, 접수탁, 당반을 비롯한 돌가구들, 돌화분과 같은 돌공예품들은 세련되고 무게있는 색과 모양으로 하여 인기제품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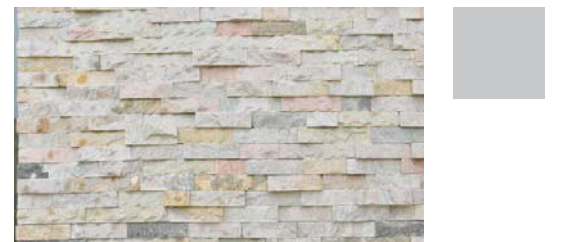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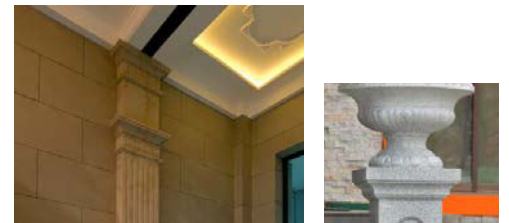
또한 석재가공과정에 나오는 돌가루를 리용하여 각이한 천연돌의 질감을 나타내게 하는 여러 장식칠감들을 개발하고있는데 질이 높은것으로 호평을 받고있다.

다양한 돌가공기술로써 이들은 건축장식분야에서 자기식의 특색을 살려가고있다.

이들은 건축장식형성안에서 손님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건물내외부의 벽면과 기둥 등에 돌장식과 돌가구들을 구색이 맞게 배합함으로써 건축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높은 조형예술성을 보장하고있다.

부원 차영림은 《우리는 기술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 국내의 돌가공기술과 건축장식분야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해나갈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과일 가공품들을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과일생산지의 하나인 함경남도 북청군에 북청군과일가공공장이 자리 잡고있다.
늘어나는 과일가공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여동의 건물들을 건설 및 개건하고 과일가공품생산공정을 새로 구축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공장에는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으며 분석실, 종합조종실, 과학기술보급실, 과일보관고 등이 번듯하게 꾸려져있다.
공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나는 향기로우면서도 맛이 좋은 과일들을 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사과단물과 사과살즙, 배단물과 배살즙, 사과농축즙, 사과발효초음료와 사과발효식초, 사과단졸임과 사과통졸임, 말린사과편, 사과단묵 등 10종에 40여가지의 제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천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공장의 특제품인 사과가루제품은 음료나 꿀에 풀어서 마시거나 료리의 맛을 살리는데 리용할수 있어 인기제품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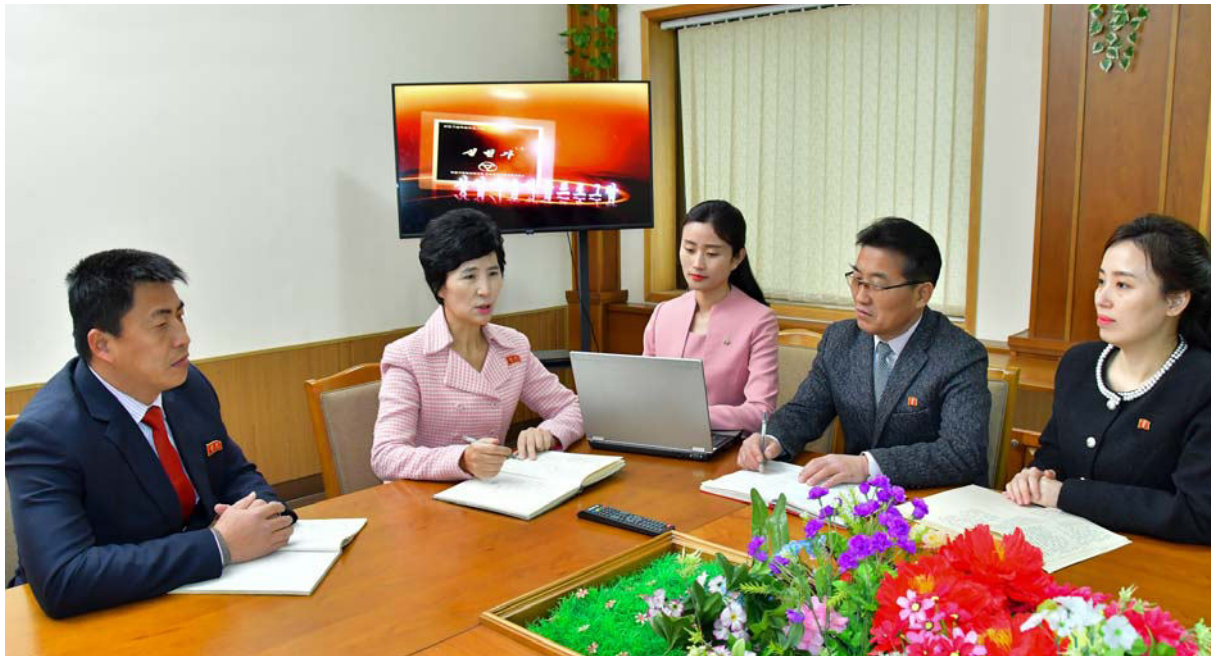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마음을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글 윤혁, 사진 전대영



봉사실기교육에 힘을 넣어

-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부에서 -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봉사학부 호텔봉사강좌에서는 전문가적자질을 갖춘 봉사일군들을 키워내고있다.

30대의 교원들이 다수를 이루고있는 강좌에는 교수경험이 풍부한 로교원들도 있다. 대학의 박사원을 졸업한 젊은 교원들은

모두가 학위소유자들이다.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호텔봉사학, 접대봉사조직, 영접봉사조직, 숙박봉사조직, 봉사위생



학, 봉사례의를 비롯하여 호텔봉사와 관련한 종합적인 교육을 주고있다.

강좌장인 박사 리후남은 관광업발전에서 봉사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라고, 그것은 충분한 자질을 갖춘 봉사일군들에 의해 담보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전문가적자질은 이론교육보다 실기교육에 의해 보다 원만히 갖추어지게 된다는것이 강좌장의 주장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간 학생들이 받는 강의시간의 60%가 실천실기교육이다. 강좌에서는 봉사기초기술이 학생들의 몸에 꼭 배이도록 하기 위해 실천실기교육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강좌에서는 대학구내에 봉사실기실을 꾸려놓고 학생들이 다양한 봉사동작들을 실지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배운 봉사기초기술을 현실에 접근한 환경속에서 습득하도록



록 하고있다.

또한 강좌에서는 손전화기용실천실기 학습지원 프로그램 《실천가》를 개발도입하여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자체로 봉사기초기술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였다. 봉사원리와 방법들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손전화기를 통해 자체로 훈련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학생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뿐만아니라 강좌에서는 해당단위와 련계를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기간 여러 호텔들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으며 교원들도 자주 현지에 나가 그곳 호텔종업원들에게 현대관광업발전추세에 맞는 봉사와 관련한 강습을 주고있다.

우수한 봉사일군들을 키워내기 위한 이곳 교육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있다.

글 전룡진
사진 김영호



상식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메주장

메주장은 인체의 성장과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생리활성물질을 풍부히 포함하고있으며 항암, 혈전용해, 혈압낮춤, 항산화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메주장은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콩단백질이 몸안에서 트립신이라는 단백질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면 콩펩티드들이 생기

는데 이 펩티드들은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콩속에는 트립신의 작용을 억제하는 콩트립신억제제가 있다.

억제제는 콩메주를 쭉고 띄우는 과정에 없어지고 콩단백질들도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된다.

* * *

국제인명사전에 오른 물리학자들

글 김성영, 사진 김강무



양자정보학의 개척자

양자정보학은 정보기술의 질적비약을 담보하는 전망성이 가장 큰 학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있는 첨단경계과학의 하나이다.

바로 이 첨단경계과학의 세계에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광학연구소 실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남철이 들어선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었다.

당시 교원이었던 김남철은 어느날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 참고도서를 보던중 하나의 자료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비록 일부 나라들이였지만 양자정보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양자암호통신기술의 개발에서 상당히 앞서나가고있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과학자로서 그의 량심에 가책을 주었다.

그는 주저없이 연구사업에 나섰다.

김남철실장은 양자물리학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터득하는 한편 정보과학 이론들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마침내 그는 《양자상태조종 및 량

자측정에 대한 정보이론적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에서 양자정보학을 개척하였으며 30대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어 량자암호통신기술을 리용한 량자암호통신기개발에 달라붙었다. 량자암호통신기술은 양자정보학에 기초하여 통신에서 도청의 흔적을 탐지해내거나 원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로서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다.

연구과정에 실패가 거듭되었지만 량자암호통신기술분야에서 조국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울 하나의 일념을 안고 김남철실장은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첨단과학기술성으로 이바지하려는 그의 애국적 열정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그는 량자암호통신기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장치를 새롭게 연구제작한데 이어 실용성이 높은 량자암호통신기를 개발하였다.

김남철실장은 연구결과들을 잡지 《응용물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SCI급국제 학술잡지들과 국제 학술토론회들에서 발표하여 세계 과학발전에도 공헌하였다.

여러 국제 학술잡지사의 논문심사자이기도 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국제인명사전에 여러 차례 등록되었다.



류변학분야의 실력가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이론물리 연구소 연구사 박명철은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실력있는 과학자이다.

박명철박사는 2019년부터 4년동안 다른 나라에서 실습하는 기간 물리학에서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문제들을 밝혀냄으로써 세계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그중 란류흐름을 가진 음향학적메타물질에서 음전파에 미치는 구조와 대류, 와류의 영향을 해명한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많은 SCI급잡지사들의 출판요청을 받았다.

한편 권위있는 연구기관들에서도 박명철박사에게 공동연구를 제의해왔다.

캐나다류변 학회에서 제의해온 공동연구에서도 그는 높은 실력과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당시 이론물리를 전공한 그에게 있어서 류변학의 점성과 탄성, 흐름을 동시에 연구해야 하는 공동연구는 어려운 과제였다.

이론적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수 있었으나 실험자료분석과 조사는 대단히 힘들었다. 어떤 때에는 한개의 공식, 한개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 며칠동안이나 모지름을 쓰기도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게 외상을 당하여 병원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그는 산골마을의 이름없던 소년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시켜 주고 20대에 박사학위 자라나도록 하여준 나라의 고마움에 조선의 과학자

의 명예를 떨치는것으로 보답할 하나의 일념을 안고 온 정신을 연구에 쏟아부었다.

그후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공동연구과제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박명철박사는 신심을 가지고 여러 나라 대학들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해나가면서 학술교류도 심화시켜나갔다.

그런데 정작 논문들을 발표하자고 하니 상대측대학들에서는 개별적인 학회회원의 명의로 논문을 출판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명예를 조국의 명예와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다.

박명철박사의 강경한 립장과 또 공동연구에서 맡은 핵심적역할로 하여 상대측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어 국제 학술잡지들에는 조선과학자의 명의로 된 논문이 출판되였다.

그는 그후에도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점탄성물질의 류변학적특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과학이론적으로 정립 체계화한 수십건의 논문들을 권위있는 국제 학술잡지들에 발표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수많은 국제 토론회들에 참가하였으며 SCI-1급 《류체 물리》잡지사들, 캐나다류변 학회 회원, 아메리카물리연합회 자문위원(고정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시할수 없는 실력으로 조국의 과학기술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국제인명사전에 여러 차례 등록되어 세계가 아는 과학자로 된 박명철박사는 오늘도 류변학의 미지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있다.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를 키워낸 교원

첫다. 한달후 학원으로부터 그가 받은것은 종목란에 력기라고 써여진 파견장(당시)이었다. 시험장소에 나와있던 학원의 한 일군이 안악군의 어린 학생의 체격을 유심히 살펴보고 팔과 다리를 잡아본 후 그를 룡상이 아니라 력기로 돌려놓았던것이다.

희망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는 강심을 먹고 력기기초기술을 착실하게 배워나갔다. 남보다 뒤늦게 력기를 시작한것으로 하여 훈련은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악하게 노력하여 육체기술수준을 끌어올리

였으며 전국인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2004년부터 중경기학부 력기 강좌 교원이 된 그는 말은 학생들을 우수한 력기강자들로 키우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었다. 훈련장에서 직접 구간봉을 들어 올리며 학생들에게 기술동작들을 원리적으로 가르쳐주면서 하루빨리 높은 기술을 소유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새롭고 참신한 교수방법을 창조하였으며 자질향상에 힘을 넣어 자기의 실력을 제고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 여성이 11살

나는 딸을 데리고 그를 찾아와 력기선수가 될수 있겠는지 봐달라고 하는것이였다. 학생에게 다리힘운동, 허리힘운동 등 력기의 기초운동을 시켜보았으나 속도가 빠르지 못하였다. 력기선수로서는 육체적조건이 적합치 않다며 다른 교원들이 머리를 저었지만 그는 힘과 유연성이 남달리 좋은 측면을 보고 그 학생을 맡아나섰다. 그 학생이 후날 력기종목에서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로 된 리숙이였다.

그는 리숙학생을 세계적인 력기명수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리숙이가 높은 훈련강도에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으려 할 때면 함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였고 그가 입맛이 없어할 때에도, 몸이 조금만 불편해해도 친부모보다 먼저 알고 진정을 기울이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보살펴주었다.

인민체육인 리숙은 《선생님은 훈련에서는 요구성이 지나칠 정도로 높지만 생활에서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있습니다. 내가 높은 기록을 세울 때마다

기뻐하며 용기를 북돋아준 선생님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리숙은 력기를 배운지 얼마안되어 전국적인 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전망성있는 력기선수후비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리숙은 첫 국제경기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2018년 아시아 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 청소년, 청년경기에 참가하여 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 다음해에 진행된 2019년 아시아 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리숙은 청소년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지만 청년경기에서는 2등을 하였다. 첫 국제경기에서 달성한 성과에 자만도취한 결과였다.

그때 정성희는 처음에는 국제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도 자만한탓으로 치렬한 금메달 경쟁에서 밀려나는 선수들이 체육계에는 적지 않다, 금메달을 쟁취한 너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고향사람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느



2024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64kg급 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리숙선수

냐고 리숙을 엄하게 꾸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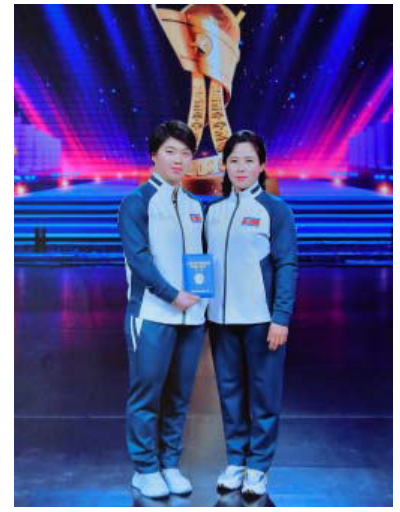
그후 리숙은 분발하여 2024년과 2025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인민체육인,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인 정성희는 전도유망한 력기선수후비들을 키워내는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진룡진
사진 김호



제자의 경기성파를 축하하여



202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제자와 함께



여운을 준 우표전람회



1946년 3월 12일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 새 조선이 처음으로 우표를 발행한 날이다. 당시 2종의 조선우표가 발행되었다.

그때로부터 80년간 조선우표는 공화국의 자랑스런 현실과 인민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비껴안고 발전하여왔다.

지난 3월 12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우표발행 80돐기념 우표전람회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우표의 80년력사를 더듬어》라는 주제로 열린 전람회에는 조선우표의 역사를 보여주는 1 400여종의 다양한 우표들과 증권류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 2025》를 비롯한 우표들에는 사회주의건설, 전면적국가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반영되어있다.

전람회장에는 이밖에도 평양시안의 우표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우표들도 전시되었다.

지난 40년간 우표를 수집해온 평양기계대학교원 최영은 전람회에 참가하게 된것을 긍지로 여긴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번에 수집품들가운데서 변천되는 평양의 모습이 반영된 우표들을 전시하였다고 하였다.

상신고급중학교 학생 석류평은 전람회에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인민의 미풍량속을 반영한 우표들을 전시하였다.

국가우표발행국 처장 박철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표수집가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속에 청년들을 비롯한 새세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전람회에 전시된 우표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글 변진혁, 사진 김호





개성고려인삼



예로부터 개성고려인삼은 사람들을 무병 장수하게 하는 보약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의 인삼은 풍토와 기후 등 자연 지리적조건이 적합한 개성지방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하여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 등으로 불리웠다. 인삼에는 건강과 장수에 필요한 여러가지 배당체가 들어있으며 필수아미노산,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 등이 들어있다. 인삼은 오장을 보호하고 뇌, 혈관계통에 좋은 영향을 주며 내분비선을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고려약, 보약제조의 기본약재로 되고있다. 또한 혈기를 왕성하게 하고 피로를 덜어 주며 정신적 및 육체적능력을 높여주고 몸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글 조일경

지하명승 룡문대굴

평안북도 구장군 읍에서 30여 리 떨어진 룡문산기슭에 룡문대굴이 위치하고있다.

룡문대굴은 오랜 세월 땅속의 석회암층에 대한 지하수의 용해, 카르스트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천태만상의 만물상을 보여주는 천연동굴이다.

동굴의 입구해발높이는 302m 정도이며 주변에는 울창한 수림이 짙어 들어차있어 신선하고 상쾌한감을 준다. 멀리로는 묘향산의 높고 큰 산봉우리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솟아있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다.

룡문대굴의 특징은 길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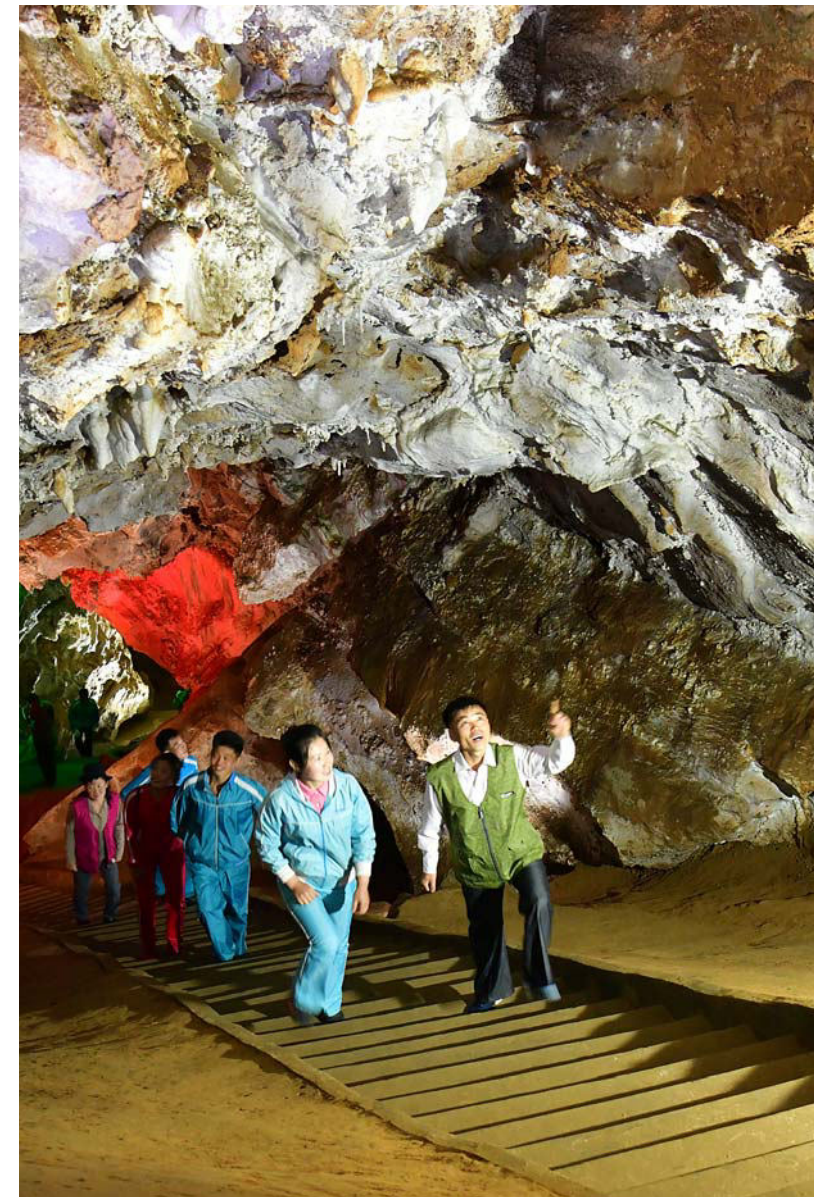
은 구간에 우아하고 화려한 카르스트만물이 다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굴은 5가지 종류 즉 깨끗한 방, 화려한 방, 아름다운 방, 우아한 방, 병풍방으로 구분한다.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고 하는 동굴에는 이런

방들중에서 한두가지의 방이 있거나 5가지 종류의 방이 다 있는 경우에도 방들사이의 거리가 수십km나 된다. 그러나 룡문대굴은 불과 7km구간에 5가지 종류의 방이 다 있고 방마다 카르스트만물이 다르기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특이한 양상을 띠고있다.

룡문대굴은 2개의 원굴과 수십개의 가지굴로 되어있다.

동굴에는 관망대, 만물동, 풍년동, 석화동, 백화동, 금강굴, 백두밀영동, 천상락원동, 광명동, 보석동, 형제동, 룡문광장을 비롯하여 신비스러운 절경을 자랑하는 20여개의 명소들이 있다.



관망대는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이곳에서는 기묘한 자연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울긋불긋한 암벽에는 묘향산의 이선남폭포를 련상케 하는 두줄기의 하얀 돌폭포가 경쾌하게 흘러내리고 가운데천정에는 희한한 룡문대굴을 구경하고 기쁨에 넘쳐 하늘로 치달아오르는 듯한 《곱등어》가 있다.

또한 《매미》와 《금붕어》도 있고 천정에는 다리를 길게 내리드리우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큰 《낙지》도 있다.

관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만가지 물상이 다 모인 곳이라 하여 만물동으로 불리우는 명소가 있다. 박물관을 련상케 하는 여기에는 다종다양한 돌고드름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이채를 띠는것은 왕의 행차시에만 리용하였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삿갓모양의 《왕관》, 《가재미》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한데 꿰매여 달아놓은 듯한 돌고드름이다.

관망대에서 내려가면 풍년 가을의 정서가 안겨오는듯한 풍년동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마치 풍년로적가리를 쌓아놓은듯하여 풍년탑이라고 부르는 웅장한 석탑모양의 돌순이 있다. 이 탑주변에는 손에 강냉이이삭을 쥐고있는듯한 《녀성농민》과 착실한 실농군이 종자로 쓰려고 천정에 주렁주렁 매달아놓은듯한 탐스러운 조이삭, 수수이삭모양의 돌고드름들, 먹이를 노리는듯한 기묘한 《개구리》바위가 있다. 천정에는 거인의 손, 돼지의 발쪽과 귀모양의 돌고드름도 있다.

하얀 돌꽃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는 백화동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곱게 피어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그속에는 방금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듯한 《함박꽃》도 있고 경축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꽃》도 있으며 《서리꽃리봉》과 《보석꽃무리등》도 있다.

하얀 서리꽃으로 단장되어 겨울의 설경을 펼쳐보이는 석화동의 절경 역시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낸다.

석화동과 백화동의 꽃경치에 한껏 흥취된 참관자들의 마음을 잠시 안정시켜주는 안심굴에는 룡문대굴의 황홀함에 떠날 줄 모르는 조선동해명승 칠보산의 《갈매기》와 아름다운 날개를 접고있는듯한 《공작새》 등이 있다.

금강궁에서는 철따라 꽃이 피고 록음이 우거지며 단풍이 지고 백설이 덮이는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수 있다. 여름철의 더위를 가해주는 시원한 그늘이 펼쳐진듯한 곳은 단풍이 곱게 물든 외금강의 경치를 그대로 옮겨놓은것 같다. 그런가 하면 우에는 백년묵은 《산삼》이 자라고있는데 참관자들이 잠간 서서 그 《산

삼》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되는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아니라 이곳에는 금강궁을 지켜가는 먼 바다가마울에서 온 《어부가정》도 있다.

백두밀영동은 이깔나무, 노가 지나무처럼 생긴 돌순들이 넓은 면적에 빼곡이 돌아나있어 마치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백두밀림을 련상시킨다.

이밖에 《사철느라리버섯》이 먹음직스럽게 자라고있는 룡연굴, 일명 하늘의 생명수라고 부르는 《천상수》가 있는 지묘굴과 청보석, 홍보석, 록보석들이 장관을 이룬 보석동, 전설에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락원과 같이 아름다운 천상락원동, 모자채양처럼 길고 넓적한 바위들이 층을 이루고있는 장식동,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 명소 등이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룡문대굴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고있다.

기기묘묘한 천태만상의 절경을 다 볼수 있는 지하명승 룡문대굴은 조국의 주요관광명소의 하나이다.

글 강진성
사진 문은남



**지하명승의 신비경에
심취되어**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구성남문

지붕은 롱마루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합각형식을 하였다. 문루에는 모루단청을 하여 그 건축미를 돋구었다. 문루의 주춧돌가운데서 북관의 남쪽 주춧돌 2개는 거북기를 형상하였는데 조각 솜씨가 우수하다.

고려시기 외적들과의 여러 전투들에서 구성남문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단 한번도 돌파당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력사적사실들은 고려인민들의 용감성과 함께 성의 견고성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구성남문은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애국적투쟁과 건축기교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력사유적이다.

글 강소현, 사진 김강

구성남문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 구성남문은 고려시기인 994년에 구주성을 쌓으면서 세워졌으며 1702년에 다시 고쳐지어졌다. 구성남문은 구주성의 8개 성문가운데서 제일 규모가 크고 건축술이 우수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년-1953년)때 파괴되었던것이 1979년에 원상대로 복구되었다. 이곳을 위원루, 진남루, 완대루라고도 불렀다. 남문의 축대는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석으로 쌓고 그 북관에 무지개모양의 문길을 내었다.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문익점은 우리 나라에 목화씨를 들여와 그 재배방법을 널리 퍼친 고려시기의 애국자이다.

문익점(1329년-1398년)은 8살에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20살에는 당시 명성이 높았던 학자 리곡에게서 배웠으며 23살에는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이름난 량반의 후손이 아닌것으로 하여 높은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였다.

꾸준히 학문을 닦은 그는 33살에 성균관 순수박사로 되었으며 35살에는 좌정언의 벼슬을 받았다.

그러던 그는 이웃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의 어느한 지방에서 목화를 재배하는것을 보게 된 문익점은 조국에 목화를 보급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 나라에서는 목화씨를 다른 나라에 가져가는것을 엄금하였으며 만일 몰래 가져가다가 들키는 날이면 엄벌을 받게 되어있었다.

귀국에 앞서 골몰히 생각하던 그는 붓대속에 감춰가지고 가기로 하였다.

한두권의 책과 붓은 허락되어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문익점은 좋은 씨앗을 골라 붓대속에 정히 넣어가지고 1363년에 귀국하였다.

고향땅에 돌아온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씨를 심었다.

한포기한포기 정성을 다해 가꾸었건만 겨우 한

포기만 살아 열매가 달렸다. 그는 거기에서 근 100여개의 씨를 받아 3년만에는 고향사람들에게 목화씨를 나누어주어 심게 하였으며 그후 10년도 채 못되어 온 나라에 목화를 퍼치였다.

문익점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와 온 가족은 천을 짜는 일에 달라붙었다. 목화씨를 뽑는 기구를 연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이들은 씨를 뽑는 씨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문익점은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이 연구에 달라붙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손자인 문래는 실을 뽑는 기구를 만들어내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구를 《문래》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후에 물레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문래의 동생 문영은 천짜는 법을 연구하였는데 사람들은 목화로 짠 천을 문영의 이름을 붙여 《무명》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문익점의 애국적인 소행으로 무명옷을 입게 된 백성들은 그를 높이 찬양하여 그의 붓대를 《만만금의 붓대》라고 불렀다.

실학자 리수광(1563년-1628년)은 문익점을 두고 《붓대의 신기한 공적은 영구히 남고 의복문화발전은 찬연히 빛났도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 * *

유모아

무게는 같다



한 시골로인이 도시의 식당에 들러 생선국을 청했다. 그런데 음식을 받고나니 기분이 상했다. 《접대원, 저 사람 국그릇엔 생선토막이 두개인데 난 왜 한토막인가?》 그러자 접대원이 이렇게 말했다. 《아이, 두토막을 내지 않아 그렇지 무게는 같아요.》

* * *



등산놀이

개성은 우리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로 유명할뿐 아니라 여러가지 민간풍속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는 고장으로도 이름이 났다.

전해지는 풍속들중에는 《남성귀》, 《북성귀》라고 부르는 등산놀이풍속도 있다.

남성귀란 남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뜻이고 북성귀란 북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뜻이다.

1. 남성귀

봄철이었다.

개성의 내성밖에 자리잡은 무시울동네의 최서방네집은 이른새벽부터 분주스러웠다.

첫닭울이에 제일먼저 깨어난것은 19살 난 딸 보패였는데 깨어나자마자 등산불을 켜놓고 하나밖에 없는 나들이옷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보패의 남동생인 잠꾸러기 장쇠도 《어이쿠, 늦었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잠이 가득 실린 눈을 비비고나서 미투리(삼겹질로 짠처럼 삼은 신)를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누나두 미투리 코뿔어진게 있으면 얼른 내놓아. 내가 기워줄게.》

《어마나, 장쇠가 이렇게 살뜰할 때도 있구나!》

자식들이 일찍 일어나 두런두런하는 바람에 어머니 리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더니 밀을 가루내느라 쿵쿵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소리에 잠을 깬 아버지 최서방이 누구에게라없이 킬킬 혀를 찼다.

《쫄쫄... 어뜩새벽부터 분주탕을 피우니...》

새벽잠을 설친 최서방이 혀를 차기는 했지만 지금 무시울동네가 남성귀준비로 분주하였다.

온 마을이 어뜩새벽부터 남성귀준비로 설렁거렸으나 마을앞 정자나무아래에 모두 모이러는 징소리가 울린것은 아침해가 두어발이나 떠오른 뒤였다.

좌상로인이 남성귀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아래에서 일일이 잔소리를 하며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였다.

사람들의 기세를 올리는데서는 뭐니뭐니해도

풍물군(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몫을 한다. 그래서 새납은 누가 맡고 징과 북, 새장고는 누가 맡는다는것이 미리 분담되어있었다.

풍물군들이 멜것은 메고 들것은 들고 불것은 불면서 정자나무아래에 모여서 징과 북을 울리며 한바탕 기세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집저집에서 처녀총각들과 새각시, 새서방티를 채 벗지 못한 젊은이들이 쏟아나왔다.

최서방네집 보패와 장쇠도 덤벼치며 대문간으로 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윽고 정자나무아래에 모두가 모이자 젊은이들은 풍물군들을 앞세우고 끼리끼리 뻬를 지어 길을 떠났다.

일행의 음식들을 모아 고리짝에 넣어 짙어진 장쇠또래 지계군들이 맨 나중에 따라섰다.

행렬이 떠들어대면서 남쪽을 향해 길을 다그쳐가는데 걸음걸음이 웃음ियो, 자국자국이 룡질이였다. 새납소리가 흥겨운 노래가락을 자지러지게 굴러넘기면서 흥취를 돋구면 장고를 멘 젊은이들과 징을 든 젊은이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장고채와 징방망이를 멋스레 휘둘러대었다.

남문을 나서서 한 시오리쯤 이렇게 걸어가니 진봉산중턱에 자리잡은 도선암과 장자궁으로 향하는 산길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고 꽃향기가 싱그러운 산길이여서 등산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처녀들은 깔깔대며 사방으로 흩어져서 꽃도 따고 산나물도 뜯었다. 보패는 꽃지짐을 부치는데 쓸 진달래꽃잎을 송이송이 상할세라 조심조심히 따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다.

아버지의 분부를 명심하고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나선 장쇠는 이마에 내똥은 땀발을 훑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다.

봄철의 짧은 해는 어느덧 하늘높이 떠올라 점심때를 가리키고있었다. 장쇠는 알맞춤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음식고리짝을 내려놓았다.

《자, 모두들 다리침을 안하겠어요?》

곁에 있던 젊은이가 꺄꺄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내가 짐을 지고오느라 출출한 모양이구나!》

《흥,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형님은 배고픈 줄도 모르니 봄바람에 취했소, 다홍치마에 취했소?》

《너석두... 말하는 꼴을 좀 보지. 꽃향기에나 취하겠지 다홍치마에두 취한다드냐?》

《흥, 진짜 취하는건 다홍치마랍디다.》

《하하하... 호호호...》

온 산등성이에 웃음소나기가 쏟아졌다.

《에라, 모르겠다. 얼어진김에 쉬어간다가 우리도 마른 목이나 추기고 가세나. 다들 이리로 오게!》

이리하여 온 동네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이고지고온 음식들을 벌려놓기 시작하였다.

남정네들이 모여앉아 막걸리병을 기울이는 동안에 녀인들은 삭정을 주어다 지짐판을 걸어놓고 불을 지펴 꽃지짐을 부치였다.

이 꽃지짐이야말로 오늘 등산놀이의 절정을 장식하는 음식이고 오늘을 놓치면 맛볼수 없는 봄철특산음식이였다.

녀인들은 서로가 남들보다 더 맛있고 모양꼭게 만들려고 원심을 쓴다.

누가 지진 지짐의 꽃잎색깔이 고운가, 꽃잎이 반듯한가, 맛은 어떤가를 서로서로 살피였다. 밀지짐, 메밀지짐 등 지짐마다에 제 나름의 맛이 있고 제 나름의 모양을 갖추고있으니 어느것이 낫고 못하다고 단마디로 말할수가 없었다.

한창 꽃지짐을 부치는 기름냄새가 풍겨올 때 한 처녀가 모두가 듣게 소리를 쳤다.

《뭐니뭐니해도 보패가 부친 꽃지짐이 제일이다! 모두들 맛보세요.》

처녀가 숨씨빠르게 꽃지짐을 접시에 담아두고 여기저기로 내돌린다. 김이 문문 나는 지짐짝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나드는데 꽃지짐과 함께 웃음과 룡담이 오가고 남정네들이 모여앉은 쪽에서는 걸죽한 우스개소리도 들려온다.

《꽃지짐맛이 이렇게 좋은걸 보니 보패가 올

해는 시집을 갈라는가보다.》

《애개개... 난 몰라!》

《하하하...》

뒤이어 여기저기서 건드러진 노래소리가 울리더니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다. 집에서는 언제 한번 마음놓고 터쳐보지 못하던 처녀들의 웃음도 이날만은 거침없이 터쳐나왔다. 흥이 한껏 오르자 논밭머리와 쇠부리터에서 익힌 마구잡이 팝새춤도 나왔다.

이어 보물찾기놀이도 하고 고려명장의 애국행적을 돌이켜보기도 하는 사이에 해는 어느덧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일행은 귀로에 올랐다.

올 때처럼 풍물군들이 앞장서 기세를 올리고 처녀들과 새색시들은 꽃잎을 따고 산나물을 캐서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채우느라 쉴새없다.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꽃지짐과 봄나물을 맛있게 대접해드리려는 가룩한 마음이 바구니마다에 가득가득 차넘친다.

어슬렁이 되어서야 일행은 마을어구에 들어섰다.

보패와 장쇠는 동무들과 덕담을 나누며 헤어져 집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 복슬강아지가 뛰어나오며 꼬리를 흔들고 부엌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내다본다.

《인제야 오는구나. 그래 잘 놀았느냐?》

《예, 잘 놀았어요. 두다리 가늘어날 지경으로 걸었어요.》 장쇠는 빈 지계를 마당구석에 벗어놓으며 자랑하였다.

《어머니, 난 배가 터질 지경으로 꽃지짐을 먹었어요. 꽃지짐을 먹는건 봄을 먹는거라 나요?》

《오냐, 그럼직한 말이로구나. 너희들은 봄을 배부르게 먹었으니 평생 봄처럼 싱싱하게 젊어 살겠구나.》

보패는 산나물바구니를내 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봄을 잡수어보세요. 꽃지짐과 산나물을 잡수시고 젊어지세요. 제깍 부쳐드릴게요. 오늘 내가 부친 꽃지짐이 맛있다고 뭐 시집갈거라나요. 호호호...》

이렇게 남성귀등산놀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졌다. 보패네만이 아닌 온 동네가 밤이 되어도 남성귀등산놀이분위기로 흥성거리였다.

(다음호에 계속)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